

購買力平價換率과 換率制度에 관한 研究

王 然 均*

<目 次>

- I. 適正換率維持의 必要性
- II. 適正換率의 計算
- III. 購買力平價換率과 複數通貨群方式의 比較
- IV. 結 論

I. 適正換率維持의 必要性

換率은 元貨와 外國通貨와의 交換比率을 나타내기 때문에 韓國輸出業者의 輸出採算과 韓國輸入業者의 輸入費用에 크게 影響을 주며 外國輸入業者의 韓國商品에 대한 購買力을 決定한다.

韓國과 같은 開途國에 있어서는 첫째, 開發過程에 따른 輸入需要가 많고, 둘째, 國內物價上昇率이 先進貿易相對國들의 物價上昇率보다 높으며 세째, 所得增加에 따라 新商品, 高級商品에 대한 餘裕있는 階層의 輸入需要가 增加하며 네째, 輸出能力이 輸入需要를 따라가지 못하므로 輸出入에서 일어나는 外換의 需要가 供給을 超過한다. 資本去來를 短期資本移動과 長期資本移動으로 나누어 살펴 보자. 固定換率制度下에서는 國內의 高金利와 物價上昇에 따른 높은 資本利得을 위한 短期資本이 流入한다. 그러나 通貨의 購買力의 相對的 惡化 또는 換率事情의 惡化가 보이면 換率의 平價切下가 豫想되고, 固定換率制度下에서 數年間 累積된 高平價要因 때문에 大幅의인 變化가 期待된다. 이때에 短期流動資金(hot money)은 海外逃避를 企圖하게 되며 金利와 未來의 換率面에서 有利한 通貨로 바뀐다. 長期資本誘致를 위한 努力에 依하여 外國人直接投資와 長期資本借入이 늘어나며 이는 施設財를 주로 한 輸入需要의 一部를 滿足시킨다. 元貨의 平價切下가 豫想되면 外國投資들의 果實送金이 늘어나고 資本導入은 遲延된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元貨의 高平價要因들의 壓力이 累積되면 外國商品이 싸지기 때문에 輸出可能品目들이 輸出되지 못하고 輸出이 축소되며 輸入需要가 增加되어 內國產業이

* 國際經濟研究院 首席研究員. 本論文의 내용은 국제경제연구원의 公式見解가 아니고 필자의 私見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또한 研究員 金峻漢氏의 도움에 감사한다.

不利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또한 國際收支의 惡化 때문에 資本流出의 統制, 資本導入을 위한 特別誘引策, 輸入의 直接規制와 輸出促進策들이 계속 動員된다. 輸入推薦許可制, 링크制, 割當制와 같은 直接規制가 強化되거나 적어도 輸入自由화가 저지되며 關稅率의 引下가 더욱 어려워진다. 輸入自由화와 關稅引下를 施行하는 경우에는 外資導入이 必要以上 所 要되기 때문에 劣惡한 條件으로 借入하거나 外國人에 의한 投資會社에 지나친 惠澤이 賦與된다. 輸出採算의 惡化로 不振한 輸出業界에는 過多한 支援이 不可缺하여진다. 輸出은 輸出代錢을 위해서 行해지기보다 國內에서 받는 支援을 目的으로 하여지기 쉽다. 이때에는 內需産業과 消費者의 희생이 뒤따른다. 成長의 鈍화와 物價騰貴, 經濟厚生의 減少要因이 된다. 對外去來에 대한 政府의 統制 및 調整의 상당한 部分이 元貨의 過大平價에서 由來한다.

II. 適正換率의 計算

適正換率은 外換의 需給에 의해서 決定되며 外換의 需給은 一定한 外換市場을 前提로 한다. 外換의 需給이란 事前的 意味에서의 需要와 供給을 意味하므로 外換保有高가 늘었다고 해서 需要에 비해 供給이 더 늘었다고 할 수는 없다. 資本移動과 用役收支는 貿易에 비해서 規模가 작고 또한 非經濟的 要因이 많이 作用하므로 여기서는 貿易側面만을 고려하고자 한다.

近年에 들어 國內物價의 騰貴率이 外國의 物價보다 더 높아지고 經濟成長率이 빠르기 때문에 全般的 輸入需要 및 抑壓된 輸入需要도 더 많아졌을 것이라고 豫想할 수 있다. 輸入自由화와 關稅率引下의 必要性이 過去 어느 때보다도 더욱 切實한 理由가 여기에 있다. 輸出의 價格競爭力이 더욱 弱화됨에 따라 持續的인 輸出增加를 위해서 달리當 輸出補助額이 增加하고 있다. 이와 같이 貿易에 의한 外換의 需給이 可變的인 政府의 統制와 支援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事後的으로 나타나는 輸出入額은 보다 自由로운 外換市場에서의 外換에 대한 需給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元貨의 對外價值를 決定하는 基本的인 힘이라 할 수 있는 購買力을 貿易相對國들의 그것과 比較하여 보고자 한다. 또한 購買力平價에 의해서 元貨價值를 달러에 페그시키는 방식과 複數通貨群(currency basket)에 페그시키는 방식의 長短點을 論하고자 한다.

네가지의 다른 方法으로 購買力變動을 比較하여 適正換率을 計算하였다. 첫째, 韓國·美國, 韓國·日本의 都賣物價(WPI)를 比較하는 方法. 둘째, 韓國과 貿易하는 主要 10個 交易國의 都賣物價를 比較하는 方法. 셋째, 交易財(tradable goods)의 都賣物價變動을 比較하

여 韓國・美國, 韓國・日本의 購買力을 比較하는 方法. 첫째, 主要交易國의 交易財의 都賣物價를 加重平均하여 韓國의 都賣物價와 比較하는 方法이다. 위의 네가지 方式은 都賣物價 對象品目 全體를 比較하느냐, 그리고 韓國과 다른 個別國과의 比較로 보느냐, 韓國과 餘他國 全體(ROW: rest of the world)를 比較하느냐에 差異가 있다.

消費者物價指數보다 都賣物價指數의 利用이 보다 適切한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이다. 첫째, 韓國外換需給의 主要要因이 貿易去來에 基因한다. 둘째, 都賣物價指數를 作成할 때에는 食料品の 加重值가 全體加重值의 28%, 其他가 72%를 차지하는 反面, 全都市消費者物價指數에는 食料品費가 46%, 住居費가 11%, 其他가 43%이다. 住宅은 國際去來의 對象이 아니며 農産物의 國際去來는 農業의 保護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制約되므로 消費者物價指數를 使用하면 農産品價格이 國際去來商品의 交易條件에 지나치게 影響을 미치게 된다.

다음에는 基準年度選擇이 問題가 된다. 우선 1965年中의 換率을 첫번째 基準年度로 정하였다. 왜냐하면, 1964年 5월에 달러當 130원에서 255.5원으로 換率을 變更시키고 單一變動換率制度를 採擇함으로써 1965年中 換率(달러當 266.7원)이 購買力比較換率에 가장 安定的인 換率로 看做되기 때문이다.⁽¹⁾ 두번째와 세번째 基準年度로서는 1972年과 1975年을 選擇하였다. 基準年度를 바꾸어 본 理由는 商品群의 構造, 商品의 品質 및 貿易의 構造가 時間의 經過에 따라 달라진다는 點과, 1972年과 1975年 역시 基準年度로서의 適合性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相異한 基準年度를 假定했을 때의 適正換率들이 많은 示唆點을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1971年 6月과 1974年 12월에 大幅의 換率調整이 있었고 그 基準이 購買力平價에 있다고 생각되므로 그 다음 年度들인 1972年과 1975年을 각각 基準年度로 選定하였다. 한편, 1972年中과 1975年中의 換率(달러當 394원과 484원)을 1965年 基準으로 檢討하여 보면 1972年은 거의 均衡換率을 維持하였고, 1975년에는 원貨가 5.6% 高平價되어 있다.

첫째, 單純都賣物價變動의 國家間 比較에 의한 韓・美, 韓・日의 適正換率計算(〈表 1〉參照).

韓國과 美國, 韓國과 日本의 都賣物價의 比較에 의하여 對美, 對日의 適正換率을 計算하여 본 結果는 〈表 1〉에서와 같다. 1978年 9月中 現在의 適正換率은 基準年度를 1965年, 1972年, 1975年으로 變更함에 따라 달러當 588원, 594원, 557원으로서 公定換率 484원에 비하여 各各 22%, 23%, 15%의 原貨 高平價現象을 나타낸다.

原貨에 대해서는 1978年 9月中 現在 基準年度의 變化에 따라 各各 22%, 15%, 13%의

(1) 金光錫, 『韓國의 貿易・外換政策』, 1976. Gilbert T. Brown, *Korean Pricing Policie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1960's*, 1973.

원貨 低平價現象을 보인다. 원貨가 엔貨에 대하여 크게 低平價된 理由는 달러貨가 엔貨에 대하여 購買力變動率 差異가 說明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平價切下되어 있고, 원 對 엔의 換率을 달러 對 엔과 달러 對 원의 裁定換率로 計算했기 때문이다. 近來 엔貨의 大幅的인 平價切上은 投機的 去來를 포함한 資本去來에 크게 힘입고 있기 때문에 購買力平價에 의한 適正換率의 計算에 問題點이 많으며 韓·日間購買力變動을 比較할 基準時點의 선정에도 어려움이 많다.

둘째, 主要交易相對國들의 物價指數를 加重平均하여 韓國都賣物價와 比較하는 方法.

10大 主要交易相對國들의 都賣物價指數를 韓國의 1975~77年中 輸出入額을 加重值로 하여 平均都賣物價를 구한 후 韓國의 都賣物價와 比較하여 適正換率을 計算하였다 (表 <2.1, 2> 參照).

10大 主要 交易國들은 日本, 美國, 西獨, 캐나다, 英國, 濠洲,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및 홍콩으로서 1975~77年中 韓國의 總輸出入額의 83%를 차지하나 資料의 不備上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홍콩은 제외하고 대신에 프랑스, 네덜란드, 臺灣 및 스웨덴을 포함시켰다. 이들과의 交易額은 總貿易高의 72%를 차지한다.

이 方式은 달러貨가 世界通貨라는 점에 착안하여 韓國과 去來對象國群 (ROW)의 通貨의 購買力을 比較하는 것이다. 國際商品市場에서의 달러貨表示價格들이 各國의 國內物價에 민감하다고 假定하는 경우에는 이 方式이 첫째 方式보다도 더욱 意味가 크다고 보겠다. 1978年 9月中 現在 원貨의 高平價는 첫번째 경우보다 더욱 크며 23%내지 32%의 범위 내에서 高平價되었다는 計算을 보여준다(<表 2.2> 參照).

셋째, 交易財(tradable goods)의 都賣物價를 國別로 比較하여 韓·美, 韓·日의 適正換率을 計算하는 方式.

첫번째와 두번째의 方式에 있어서는 各國의 單純都賣物價를 利用하였다. 이들 方式의 問題點은 都賣物價作成對象品目과 交易財의 構成이 같다고 假定하는 것이다. 商品別 加重值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들 두 그룹은 事實上 異質的인 그룹이다. 예컨대 1977年 現在 都賣物價作成時에는 食料品이 28%의 加重值를 가지나 交易財중 食料品の 比重은 8%에 불과하기 때문에 食料品の 價格騰貴率이 1971~78年中 年平均 20%의 높은 比率을 보인 韓國에서는 單純都賣物價의 比較(첫째와 둘째 方法)는 원貨가 지나치게 高平價된 것과 같은 誇張된 結論을 이끌게 된다.

交易財作成을 위한 商品別 加重值는 1970年과 1975年 韓國의 輸出入額의 商品別 構成에 따라 作成되었다(<表 3.1> 參照). <表 3.2, 3, 4>는 韓·美·日의 交易財 都賣物價를 보여준

다. 1965年을 기준년도로 할 때에는 1970年의 交易加重值를, 1972年과 1975年을 基準年度로 할 때에는 1975年의 交易加重值를 使用하였다.

〈表 3.5〉에서와 같이 1965年과 1972年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1978年 9月中 現在 元貨가 각각 9.3%와 2.3% 低平價되어 있음을 보여주나 1975年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4.2% 高平價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본 元貨에 대해서는 41%로부터 21%까지 元貨가 低平價되어 있다. 수출상품의 重化學工業製品化에 따라 交易財의 構成과 品質이 많이 변화하여 왔기 때문에 1970年度 交易財의 1965年 가격과 1978年 9月中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적을 것이다. 그러므로 1975年 交易財에 관하여 1972年과 1975年을 기준년도로 하였을 때에 산출된 適正換率이 보다 의미가 많다 하겠다. 後者의 두 결과를 平均的으로 보면 달러貨에 비하여는 元貨가 1% 高平價되어 있고 元貨에 대해서는 元貨가 26% 低平價되어 있다.

交易財에 대한 환율에 있어서는 첫째 방식에 있어서와 같이 기준년도 선정의 문제, 구매력변동폭 이상의 엔시세 급등이라는 점 이외에 다음의 중요한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元貨의 對달러貨價格은 급등했으나 日本 수출품의 가격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는 점이다. 수출품의 달러貨表示價格은 元貨價値의 상승에 비해서 훨씬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경쟁적인 국제시장에서 市場占有分을 크게 잃지 않기 위해서 기업경영의 합리화와 수익의 감소로 對處하여 왔기 때문이다. 실제 무역에 있어서 적용된 元貨는 元貨에 대하여 高平價幅이 훨씬 적을 것이다. 즉 元貨의 對元貨低平價 정도는 실제 무역에 있어서 26% 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 더우기 지나치게 수입이 억제된 食料品이 交易財의 구성에 있어서 보다 큰 비중을 점해야 하며 수출품, 수입품이 보다 다양화하여 가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달러貨에 대한 元貨의 高平價 정도는 더욱 커지며 元貨에 대한 低平價 정도는 더욱 작아진다.

네째, 美國과 日本의 도매물가지수를 美·日의 交易加重值로 加重平均한 方式.

1975~77年中 한국의 수출입액 중 美·日과의 교역액 比重은 57%이며 그중 美國이 48%, 日本이 52%를 차지한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상품 품목별 도매물가지수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表 4.1〉 참조). 美·日의 도매물가 평균지수와 한국의 도매물가를 비교하여 계산하면 〈表 4.2〉와 같다. 세계 방식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이유로 1965年 基準의 계산결과는 무시하고 1972年과 1975年 기준시의 적정환율을 고려하면 1978年 9月中 元貨는 3.5% 내지 13.2% 高平價되어 있다. 세계 방식에서와 같이 食料品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경우에는 물론 元貨 고평가 폭이 더 커진다.

III. 購買力平價換率과 複數通貨群方式의 比較

무역상대국들과의 구매력비교에 의하여 원貨의 對外價値를 調整하면서 달러貨에 페그시키는 방법과 複數通貨群(currency basket)에 페그시켜서 複數通貨群의 가치 변동에 따라 원貨의 달러貨表示 換率을 변경시키는 방법중 어느 것이 보다 적절한가?

前者가 보다 적절하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後者의 不適節함부터 먼저 설명하자. 複數通貨群制度는 두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SDR 페그方式과 SDR 型 複數通貨群制度이다.

SDR 構成國의 중요성과 한국 무역상대국들의 한국입장에서의 중요성이 크게 다르므로 (예컨대 日本), SDR 페그보다는 SDR 型 複數通貨群이 더욱 진지한 고려대상이 된다.

複數通貨群制度는 다음과 같이 定式化될 수 있다. ⁽²⁾

$$e = R_b \sum s_i (R_{it} / R_{bt})$$

e : 복수통화군 페그時의 원貨의 달러表示換率 ($\frac{\$}{\text{원}}$).

s_i : i 國의 加重值 ($i=1, 2, \dots, n$) 무역의 중요도에 따름.

R_b : 기준시점의 달러表示換率 ($\$/i$ 국 통화 단위).

R_{it} : 비교시점(t)에 있어서 i 國通貨의 달러表示換率 ($\$/i$ 국 통화단위).

R_{bt} : 기준시점(b)에 있어서 i 國通貨의 달러表示換率 ($\$/i$ 국 통화단위).

위 式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美國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通貨가 달러貨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평가절상되면 (즉 비싸지면) 원貨도 평가절상된다. 一部 論者들은 한국무역이 다변화되어 가고 있고 安定通貨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근거에서 複數通貨群制度를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기로 하자. 현실적인 계산을 위해서 한국의 주요무역국들(i)을 10個國으로 국한한다고 하자. 첫째, 이들 10個國들의 個別 對美換率은 外換의 自由로운 需給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원貨의 對달러換率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강력한 자본거래의 통제, 수입의 통제 때문에 자유로운 外換市場에서 형성되는 환율보다는 원貨가 훨씬 高平價되어 있을 것이 명확하다. 주로 구매력변동의 비교에 의해서 결정된 환율을 外換需給에 의해서 결정된 他國들의 환율과 연결시키면 원貨의 고평가 정도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수출증대를 위해서 금융, 재정지원이 더욱 늘어야 된다. 이것은 국내물가에 기름을 퍼붓는 격이 된다. 둘째, 외환수급에 연결시키는 기준년도의 책정이 대단히 어렵다. 왜냐하면 환율조정이 구매력평가에 주로 기반을 두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환과 무

(2) 李儼九, 『國際金融論』.

역의 통제가 자유화되기 이전까지는 무역상대국들과의 구매력비교에 의해서 원貨의 對달러 貨價値를 점차 변경시켜가는 것(gliding peg)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IV. 結 論

外換의 去來가 統制되고 輸入의 상당한 부분이 直接規制下에 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購買力平價換率의 글라이딩·페그 制度(gliding peg system)가 複數通貨群制度(currency basket system)보다 더욱 적절하다.

民間主導에 의한 수출증진의 自律化, 수입의 自由化 및 관세인하를 위한 환경 조성, 즉 價格機構에 의한 貿易의 擴大를 위해서는 適正換率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本論에서 네가지 다른 방법과 相異한 基準年度下의 適正換率을 計算하였다. 한국과 主要 交易相對國群의 도매물가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두번째 방식 (<表 2.2>)과 네번째 方式 (<表 4.2>)이 특히 많은 示唆點을 준다. 두번째 方式에는 단순도매물가가 비교되었고 네번째 方式에는 교역재의 도매물가가 비교되었다. 단순도매물가의 비교는 원貨가 달러에 비하여 23%~32% 高平價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交易財 도매물가의 비교에 의하면 원貨가 달러貨에 비하여 4%~13% 高平價되어 있다. 交易財가 더욱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農產物과 其他商品의 상당한 輸入自由化가 切實함에 비추어 前者는 적절환율의 上限(upper range), 後者는 下限(lower range)을 提供한다고 볼수 있다. 하나의 숫자를 선택한다면 15% 정도의 원貨 平價切下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른 補完措置가 同伴되지 않는다면 5%정도의 도매물가의 引上이 뒤따를 것이다. 물가는 한번의 충격에 그칠 것이고 金利引上, 通貨量減縮 등의 물가안정 정책과 같이 취해지면 물가인상효과는 더욱 적을 것이다. 近年의 계속적인 輸出探算性의 惡化와 이에 따른 금융지원과 통화량의 증가, 수입자유화에 따라 요청되는 국내산업의 경쟁능력 유지라는 문제 때문에 적정환율의 보장이 과거 어느때 보다 더욱 요청되고 있다.

〈表 1〉兩國間 都實物價指數比較에 의한 方法

	年 度	韓 國	美 國	日 本
都買物價指數 (1975=100)	1965	28.8	55.2	57.3
	1972	52.0	68.1	63.8
	1975	100.0	100.0	100.0
	1978.6	136.3	119.8	105.1
	1978.9	139.7	121.4	103.1
公定換率 (期間中平均 ₩/\$, ₩/¥)	1965		266.74	0.741
	1972		393.97	1.300
	1975		484.00	1.631
	1978.6(X)		484.00	2.258
	1978.9(Y)		484.00	2.545
適正換率	1978.6	65年基準(A)	581.67	1.912
		72 " (B)	587.01	2.069
		75 " (C)	550.66	2.115
	1978.9	65年基準(D)	588.32	1.998
		72 " (E)	593.72	2.161
		75 " (F)	556.96	2.210
公定換率과 適正換率의 比較 (%) ⁽¹⁾	A/X × 100 - 100		20.2	-15.3
	B/X × 100 - 100		21.3	-8.4
	C/X × 100 - 100		13.8	-6.3
	D/Y × 100 - 100		21.6	-21.5
	E/Y × 100 - 100		22.7	-15.1
	F/Y × 100 - 100		15.1	-13.2

註：(1) -는 원貨 低評價 現象을 +는 원貨 高評價 現象을 보여 준다.
資料：IMF, IFS, May 1978, Jan. 1979.

〈表 2〉10大 主要交易相對國의 都實物價量 加重平均한 方式
2.1. 交易加重值와 都實物價指數 (1975=100)

	交易加重值 ⁽¹⁾	1965	1972	1975	1978.6	1978.9
日 本	41.0	57.3	63.8	100.0	105.1	103.1
美 國	37.0	55.2	68.1	100.0	119.8	121.4
西 獨	5.5	69.0	79.0	100.0	108.0	108.2
캐나다	3.4	51.0	63.2	100.0	123.2	125.8
英 國 ⁽²⁾	3.2	44.1	60.8	100.0	152.7	155.6
濠 洲 ⁽³⁾	2.8	52.7	69.0	100.0	131.9	135.1
프랑스	2.1	56.2	71.6	100.0	117.6	119.6
和 蘭	1.8	66	80	100.0	115	115
臺 灣	1.7	53.1	61.0	100.0	108.9	110.3
스웨덴 ⁽³⁾	1.0	54.9	77.7	100.0	134.9	136.3
韓 國		28.8	52.0	100.0	136.3	139.7

註：(1) 交易加重値는 1975~77年の 우리나라 輸出入額을 基準으로 算出하였음.

上位 10個國중 資料가 不備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인도네시아, 홍콩등 4個國은 제외하고 프랑스, 네덜란드, 臺灣, 스웨덴을 追加하였음.

(2) 는 Industrial Output Price 임.

(3) 은 消費者物價指數임.

資料：IHF, *IFS*, May 1978, Jan. 1979.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78.

2.2. 適正換率의 計算

	年	度	韓	國	10個國加重平均
都 買 物 價 指 數 (1975=100)		1965		28.8	56.2
		1972		52.0	66.5
		1975		100.0	100.0
		1978.6		136.3	113.9
		1978.9		139.7	114.0
公 定 換 率 (期間中平均, ₩/\$)		1965		266.74	
		1972		393.97	
		1975		484.00	
		1978.6(X)		484.00	
		1978.9(Y)		484.00	
適 正 換 率 (₩/\$)	1978.6	65年基準(A)		622.88	
		72 " (B)		602.91	
		75 " (C)		579.19	
	1978.9	65年基準(D)		637.86	
		72 " (E)		617.41	
		75 " (F)		593.11	
公 定 換 率 과 適 正 換 率 의 比 較 (%)		A/X × 100 - 100		28.7	
		B/X × 100 - 100		24.6	
		C/X × 100 - 100		19.7	
		D/Y × 100 - 100		31.8	
		E/Y × 100 - 100		27.6	
		F/Y × 100 - 100		22.5	

〈表 3〉 交易財의 都實物價比較에 의한 方式

3.1. 商品類別 加重值

(單位: 百萬달러, %)

	SITC Code	1970		1975	
		交易額	%	交易額	%
農水産食品 및 加工食品	0, 11, 22, 29	413.3	14.7	1,617	13.1
纖維 및 工製品	26, 65, 84	589.2	20.9	2,434	19.7
木材 및 工製品	24, 63, 82	223.1	7.9	528	4.3
펄프 및 紙類	25, 64	44.0	1.6	157	1.3
化學製品	4, 51~57, 59	154.6	5.5	818	6.6
合成樹脂 및 고무製品	23, 58, 62, 85	76.5	2.7	447	3.6
土石 및 유리製品	27, 66	48.1	1.7	261	2.1
鐵鋼 및 工製品	67	103.0	3.7	577	4.7
非鐵金屬 및 工製品	28, 68, 69	184.4	6.5	481	3.9
機械 및 部分品	71, 73, 86	499.4	17.7	1,812	14.7
電氣機械器具	72, 81	178.8	6.3	958	7.7
石油類 및 工製品	33, 34	137.8	4.9	1,434	11.6
石炭 및 電力	32, 35	6.9	0.2	48	0.4
雜製	9, 12, 21, 61, 83, 89	159.9	5.7	783	6.3
計		2,819.0	100.0	12,355	100.0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77.

3.2. 商品類別 都實物價指數⁽¹⁾ (韓國)

(1975=100)

	貿易加重值		物價 加重值	1965	1972	1975	1978.6	1978.9
	1970	1975						
總指數	100.0	100.0	1,000.0	28.8	52.0	100.0	136.3	139.7
食料	14.7	13.1	282.8	23.2	52.7	100.0	170.2	178.7
纖維 및 工製品	20.9	19.7	129.5	45.3	74.3	100.0	118.7	122.8
木材 및 工製品	7.9	4.3	24.1	38.8	59.9	100.0	131.4	132.2
펄프 및 紙類	1.6	1.3	26.8	33.2	51.1	100.0	111.7	111.3
化學製品	5.5	6.6	81.5	44.7	54.6	100.0	132.8	133.3
合成樹脂 및 고무製品	2.7	3.6	35.9	41.4	55.1	100.0	113.4	113.4
土石 및 유리製品	1.7	2.1	35.2	28.5	49.2	100.0	127.0	127.8
鐵鋼 및 工製品	3.7	4.7	51.8	33.5	50.6	100.0	119.3	120.3
非鐵金屬 및 工製品	6.5	3.9	21.0	31.8	59.4	100.0	115.5	116.5
機械 및 部分品	17.7	14.7	48.8	34.4	67.9	100.0	116.4	116.8
電氣機械器具類	6.3	7.7	35.9	54.6	76.7	100.0	104.2	105.1
石油類 및 工製品	4.9	11.6	109.1	12.8	23.6	100.0	112.8	112.8
石炭 및 電力	0.2	0.4	58.5	25.6	52.9	100.0	161.5	164.7
雜	5.7	6.3	59.1	58.9	78.6	100.0	126.3	129.8
貿易加重值로	70年 加重值			37.4		100.0	126.7	129.3
加重平均한指數	75年 加重值				59.9	100.0	125.2	127.7

註: (1) 1965年 基準時에는 1970年 貿易加重值를, 1972, 1975年 基準時에는 1975年 貿易加重值를 사용하였음.

資料: 韓國銀行 『經濟統計年報』, 1977. 『統計月報』, 1978. 11.

3.3. 商品類別 都賣物價指數 (美國)

(1967=100)

	貿易加重值		1965	1972	1975	1978.6	1978.9
	1970	1975					
總指數	100.0	100.0	96.6	119.1	174.9	209.4	212.3
食料品	14.7	13.1	97.1	122.4	184.2	210.4	209.5
纖維 및 工製品	20.9	19.7	99.8	113.6	137.9	158.9	161.1
木材 및 工製品 (1)	7.9	4.3	95.9	144.3	176.9	278.5	282.8
펄프 및 紙類	1.6	1.3	96.2	113.4	170.4	192.3	199.1
化學製品	5.5	6.6	99.0	104.2	181.3	199.1	200.2
合成樹脂 및 고무製品	2.7	3.6	95.9	109.3	150.2	174.4	176.6
土石 및 유리製品 (2)	1.7	2.1	97.5	126.1	174.0	221.7	227.8
金屬 및 工製品	10.2	8.6	96.4	123.5	185.6	225.2	231.5
機械器具 (3)	24.0	22.4	96.2	118.0	153.0	183.8	186.1
燃料 및 電力	5.1	12.0	95.5	118.6	245.1	322.8	324.4
雜品	5.7	6.3	95.9	114.6	147.7	169.7	172.8
貿易加重值로	70年加重值		97.2			201.9	204.3
加重平均한 指數	75年加重值			118.1	171.1	207.4	209.7

註: (1)은 家具未包含.

(2)는 nonmetallic mineral product 임.

(3)은 machinery and equipment 와 transportation equipment 를 算術平均한 指數임

資料: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1978. U.S. Department of Commerce, Survey of Current Business, Nov. 1978.

3.4. 商品類別 都賣物價指數 (日本)

(1975=100)

	貿易加重值		物價加重值	1965	1972	1975	1978.6	1978.9
	1970	1975						
總指數	100.0	100.0	1000.0	57.3	63.8	100.0	105.1	103.1
食料品 (1)	14.7	13.1	156.8	51.7	65.0	100.0	112.7	112.1
纖維 및 工製品	20.9	19.7	62.9	67.7	76.1	100.0	110.8	110.5
木材 및 工製品	7.9	4.3	33.6	48.1	70.8	100.0	107.8	107.0
펄프 및 紙類	1.6	1.3	28.9	51.8	57.6	100.0	99.8	93.0
化學製品 (2)	8.2	10.2	91.1	63.1	59.1	100.0	98.9	97.0
土石 및 유리製品	1.7	2.1	30.5	52.2	61.7	100.0	114.9	115.7
鐵鋼 및 工製品	3.7	4.7	80.7	63.0	68.0	100.0	114.8	113.2
非鐵金屬 및 工製品	6.5	3.9	75.7	61.9	64.7	100.0	100.6	98.1
機械 및 部分品	17.7	14.7	169.7	70.2	73.0	100.0	100.9	100.4
電氣機械器具	6.3	7.7	73.3	85.9	80.6	100.0	95.5	94.6
石油 石炭 및 電力	5.1	12.0	127.7	34.8	40.1	100.0	101.6	95.0
雜品	5.7	6.3	66.1	45.5	58.6	100.0	107.4	105.3
貿易加重值로	70年加重值			61.0		100.0	105.9	104.6
加重平均한 指數	75年加重值				65.8	100.0	105.5	103.8

註: (1)은 食料品과 非食料 農水産物임. (2)에는 合成樹脂 및 고무製品이 包含되었음.

資料: 日本統計局, 『經濟統計年報』1977, 1978. 日本銀行, 『經濟統計月報』1978.11.

3.5. 適正換率의 計算

	年 度	70年交易加重值로 算出한 指數			75年交易加重值로 算出한 指數		
		韓 國	美 國	日 本	韓 國	美 國	日 本
交易加重值로써 加重平均한 都賣物價 指數(1975=100)	1965	37.4	58.5	61.0			
	1972				59.9	69.0	58.5
	197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78.6	126.7	121.5	105.9	125.2	121.2	105.5
	1978.9	129.3	122.9	104.6	127.7	122.6	103.8
公定換率 (期間中 平均 ₩/\$, ₩/¥)	1965				266.74		0.741
	1972				393.97		1.300
	1975				484.00		1.631
	1978.6(X)				484.00		2.258
	1978.9(Y)				484.00		2.545
適正換率 ⁽¹⁾ (₩/\$, ₩/¥)	1978.6	65年基準(A)			435.08		1.446
		72 " (B)			468.80		1.695
		75 " (C)			499.97		1.936
	1978.9	65年基準(D)			438.95		1.494
		72 " (E)			472.70		1.757
		75 " (F)			504.13		2.007
公定換率과 適正換 率의 比較 (%)	A/X × 100 - 100				-10.1		-36.0
	B/X × 100 - 100				-3.1		-24.9
	C/X × 100 - 100				3.3		-14.3
	D/Y × 100 - 100				-9.3		-41.3
	E/Y × 100 - 100				-2.3		-31.0
	F/Y × 100 - 100				4.2		-21.1

註：(1) '65年基準 適正換率은 '70年 交易加重值로써 加重平均한 都賣物價指數를 利用하여 算出하였 고 72年과 75年基準의 경우는 75年 交易加重值로 加重平均한 都賣物價指數를 利用 算出하였 음.

<表 4> 交易財의 都賣物價를 美·日의 交易加重值로 加重平均한 方式

4.1. 美·日 兩國의 國別 交易加重值

	1975~77年間輸出入額	%	兩國의 加重值
美 國	13,439百萬\$	27.0	47.7
日 本	14,703 "	29.6	52.3
其 他	21,559 "	43.4	—
計	49,701 "	100.0	100.0

4.2. 適正換率의 計算

	年 度	'70年 交易加重值로 算出 한 指數			'75年 交易加重值로 算出 한 指數		
		韓 國	美 國	日 本	韓 國	美 國	日 本
都賣物價指數(期間 中 平均 1975=100)	1965	37.4	58.5	61.0			
	1972				59.9	69.0	65.8
	1975				100.0	100.0	100.0
	1978.6	126.7	121.5	105.9	125.2	121.2	105.5
	1978.9	129.3	122.9	104.6	127.7	122.6	103.8
美·日의 交易加重 值로 加重平均한 都 賣物價指數			二國加重平均			二國加重平均	
	1965	37.4	59.8				
	1972				59.9	67.3	
	1975				100.0	100.0	
	1978.6	126.7	113.3		125.2	113.0	
1978.9	129.3	113.3		127.7	112.8		
公定換率 (期間中平均 ₩/\$)	1965				266.74		
	1972				393.97		
	1975				484.00		
	1978.6(X)				484.00		
	1978.9(Y)				484.00		
適正換率(₩/\$)	1978.6	65年基準(A)		476.94			
		72 " (B)		490.43			
		75 " (C)		536.25			
	1978.9	65年基準(D)		486.73			
		72 " (E)		501.11			
		75 " (F)		547.93			
公定換率과 適正換 率의 比較 (%)	A/X × 100 - 100		-1.5				
	B/X × 100 - 100		1.3				
	C/X × 100 - 100		10.8				
	D/Y × 100 - 100		0.6				
	E/Y × 100 - 100		3.5				
	F/Y × 100 - 100		13.2				